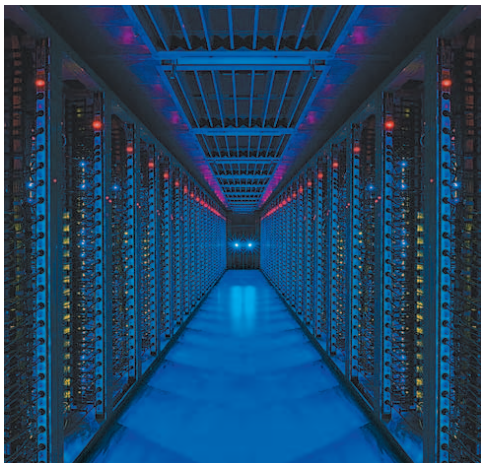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인터넷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게 된 NHN의 데이터센터 서버실. 사진제공 | NHN

NHN ‘각’을 세우다

(關)

국내 인터넷 기업 첫 데이터센터 오픈
‘21C 장경각 프로젝트’ 2년 만에 결실

NHN이 국내 인터넷 기업 최초로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보유하게 됐다.

NHN은 20일 강원도 춘천시 동면에 위치한 자체 데이터센터의 가동을 시작했다. NHN은 이날 데이터센터 내부와 친환경·고효율 기술을 언론에 공개했다.

NHN은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할천 해인사 ‘장경각’의 정신을 잇기 위한 ‘21C 장경각’ 프로젝트를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에 오픈한 데이터센터 명칭도 ‘장경각’을 본 따 ‘각(關)’으로 정했다.

구룡산자락에 위치한 ‘각’은 축구장 7배 크기인 5만4229㎡ 부지에 건립됐으며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관리동인 본관 1개동과 지하 2층, 지상 3층의 서버관 3개동 등 모두 4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NHN은 ‘각’의 건립으로 폭증하는 데이터 홍수 속에서 제타바이트 시대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 이용자들은 초당 4000회 이상 검색어를 입력하고, 초당 2300통 가량의 메일을 주고받는다. 이 밖에도 N드라이브와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 이용자 콘텐츠 뿐 아니라 디지털화한 국보급 유물, 옛날 신문 등을 보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약 180 페타바이트에 달한다.

‘각’은 IDC로서는 세계 최초로 국제 친환경 인증제도인 ‘LEED’의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표준 지표(PUE)도 국내외 최고 수준이다. 이 밖에도 수도관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진이나 홍수 등 어떠한 외부의 물리적 재해나 충격에서도 안전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다.

박원기 NHN IT서비스사업본부장은 “각의 건립은 한글로 된 디지털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셈”이라며 “우리 선조들이 외세 침략에서 팔만대장경을 지켜냈듯 이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kye76



‘두 도시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과 희생의 위대함을 드러낸 뮤지컬 작품이다. 사랑하는 여인 루시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시드니 칼튼(왼쪽·윤형렬 분)이 단두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BOM코리아

‘한 노래’ 배우들 ‘두 도시’ 모였다

공·소·남 양형모입니다

(공연 소개팀 시켜주는 남자)

넘버 보강하고 극 진행에 속도감 붙여
무게감 덜자 웃음과 눈물 감동 극대화
윤형렬 대박 조짐...최현주 애교 작렬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가 ‘확’ 달라졌다.

가장 피부와 귀에 와 닿는 변화는 전철 해지고, 속도를 냈다는 점. 지난해 초연에서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에 꿀꿀 게 없는 고품격 뮤지컬을 표방했지만 납땜 이같은 무게감과 느릿한 템포는 왕왕 관객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다. 물론 “이런 것이 바로 ‘두 도시 이야기’를 보는 맛”이라며 박수를 보낸 관객도 적지 않았지만.

어쨌든 ‘두 도시 이야기’가 달라졌다. 배우들의 대화를 활용해 상황설명을 늘렸고, 극의 진행에 속도감을 붙였다. 넘버(노래)를 보강하고 음악의 템포에도 살짝 손을 댔다.

여자와 뮤지컬의 변신은 무죄. 자잘한 변화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무게감을 살짝 덜어내자 극의 뼈대가 눈에 확 들어왔다. 느린 템포에 가려졌던

|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

넘버들이 화사한 빛과 비통한 어둠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짝사랑하는 여인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 대신 단두대의 계단을 오르는 ‘시드니 칼튼’(윤형렬 분)의 심정이 스무 자루의 단두처럼 마음을 아프게 찢어졌다.

●뮤지컬판 ‘나 가수’...윤형렬 스타등극 예상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 18세기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벌이는 위대한 사랑의 부활. 뮤지컬 ‘두 도시 이야기’는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쓴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2007년 월드 프리미어 이후 브로드웨이, 아일랜드, 한국, 독일에서 공연됐고 올해는 일본에서도 막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두 도시 이야기’를 두고 “또 하나의 탁월한 고전이 탄생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초연에 이어 다시 한 번 ‘시드니 칼튼’을 맡은 윤형렬은 ‘두 도시 이야기’를 통해 대박스타로 등극할 조짐이다. 8개월 사이에 연기가 몰라보게 깊어졌고,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이 뿜어내는 소리는 공연장과 관객의 마음 구석구석을 울렸다. 그가 무대에서는 날은 SNS와 온라인 공연계시판이 후

●양기자의 내 맘대로 평점

감동 ★★★★★
당신에게도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웃음 ★★★★★
무게 잡던 초연과 달리 곳곳에서 웃음이 터진다

음악 ★★★★★
팬히 ‘레미제라블’에 골리지 않는 게 아니다

무대 ★★★★★
초연보다 무대와 객석이 가까워졌다. 특유의 뼈대세트를 눈앞에서 볼 수 있음

끈 달아온다.

위낙 음악이 좋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이리도 ‘한 노래’하는 배우들을 한데 모아놓았나 싶다. 윤형렬, 카이, 최수형, 최현주, 임혜영, 신영숙, 백민정, 임현수. 여기에 곧 합류할 류정환까지 그야말로 뮤지컬판 ‘나는 가수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과 달라진 관람 팁 하나. 청순한 엔젤로만 기억됐던 ‘루시 마네트’가 애교쟁이가 됐다. 어쩐지 ‘얼음공주’ 느낌이 짙었던 여배우 최현주의 ‘작살애교’를 볼 수 있다. ‘시드니’를 저녁식사에 초대하면서 루시가 두 손바닥을 내밀며 “거절하기 없음~”할 때 관객석은 뒤집어진다.

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트위터 @ranbi361

컬처박스

폭탄주 마시면서도 식스팩 만든다?



●폭식 다이어트(임종필·김현욱 지음 | 중앙북스)

‘폭탄주 마시면서 식스팩 만든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배용준 등 인기 스타의 피지컬 트레이너를 맡아 ‘JP’란 애칭으로 잘 알려진 임종필 트레이너. 그는 “직장인에게 술 끊고 닭 가슴살만 먹고 운동에 전념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이라며 직장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다이어트를 제안했다. 책에서 임종필 트레이너가 강조한 직장인 다이어트 원칙은 세 가지. 아침은 무리한 식단 조절 대신 평소 먹고 싶은 것으로 꼭 챙겨 먹기, 회식에 참가하면 다음날 무조건 운동한다고 마음먹기,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4일 이상 운동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12주 만에 10kg를 감량하는데 도움 이 되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달걀 레시피 17가지와 임종필 트레이너와 김현욱이 운동하는 과정을 QR코드 영상으로 제공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kobaukid

창업 고수가 전하는 ‘대박집’의 비법



●장사하지 말고 혁신하라(이은표 지음 | 디스커버리미디어)

커피전문점이나 차려볼까? 실내포장마차가 돈 좀 번다고 하던데 나도 해볼까? 은퇴하면 장사나 하지 뭐. 직장인이려면 이런 생각 한 번 안해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만만찮다.

자영업 창업자의 1년 생존율은 70%, 5년 생존율은 20%란다. 100명이 창업을 하지만 5년 후엔 고작 20명만 살아남는 셈이다. 그러나 ‘대박집’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들의 장사 비법은 뭘까. 이 책은 그 비법을 알려준다. 지은이는 장사 경험이 풍부한 자영업 마케팅 전문가. 장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관분석법과 충성 고객 확보 방법, 공감을 주는 홍보 마케팅 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 장사 고수 11명의 성공 비결도 담았다. 결론은 이렇다. 장사로 성공하고 싶다면 연구하라. 그리고 혁신하라.

이 시대의 장인들, 그들의 삶 속으로



●장인44(서주희 지음 | 한국방송출판)

장인(匠人).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심혈을 기울여 물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예술가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국내 문화캐스터 1호인 서주희 씨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인들의 삶과 작품 제작과정을 밀착 취재해 책으로 엮었다. 대목장 신승수, 염색장 김지희, 한복장인 이나경, 김치명인 이하연 등 장인 44명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룩한 전통의 아름다움과 뜨거운 예술혼을 생생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장인들을 한자리에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 년에 걸쳐 연을 이어가며 그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자칫 고루하다고 여겨기 쉬운 전통문화를 범고창신의 장인정신으로 되새기게 한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12357

국내최초
국내유일

번거로운 튀김기 정제와 청소, 5분이면 끝 !!

버튼 하나로 5분이면 찌꺼기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해주며, 사용중인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은 거의 초기 상태로 환원시켜 줍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수시로 간편정제
사용중인 식용유 재사용!!

강력한 진공펌프에 의한 자동순환 방식의
4단계 정제시스템으로 미세한 찌꺼기는 물론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까지 제거

언제나 깨끗하고 신선한 식용유로
맛있고 깔끔한 튀김요리를

- 기존 튀김기는 50마리 조리 후 기름교체
- OK튀김기는 최대 300마리까지
- 유증기나 유해연기가 발생하지 않음.

놀라운 정제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무담보·무보증
최장 36개월
할부



OK 튀김기 닭150마리



일반 튀김기 닭60마리

2013년 히트상품



국내 최초 정제기 일체형
OK 자동 정제 튀김기

100% 국내제작
KS-SP-6000(대형/462)
600×685×1030(mm)
LPG(1.43kg/h)
LNG(17,200kcal/h)
정제기일체형

강제 공기 혼합방식으로 가스소비량 대폭 절감

식용유 60% 절약!!
가스비 40% 절약!!

절감되는 유지비로 불임금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식용유+가스) 월 60만원 사용하는 업소

→ 월 30~34만원 절감

치킨전문점·돈까스 전문점, 호텔, 단체급식,
일식집, 호프집, 오펜, 어묵공장등 튀김요리를
많이하는 점주님께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사은행사중

사용기계 교체시
보상판매물
에 드립니다.



OK에너지(주)
www.okenergy.kr

구입
문의

1577-9729

전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24시간 상담가능